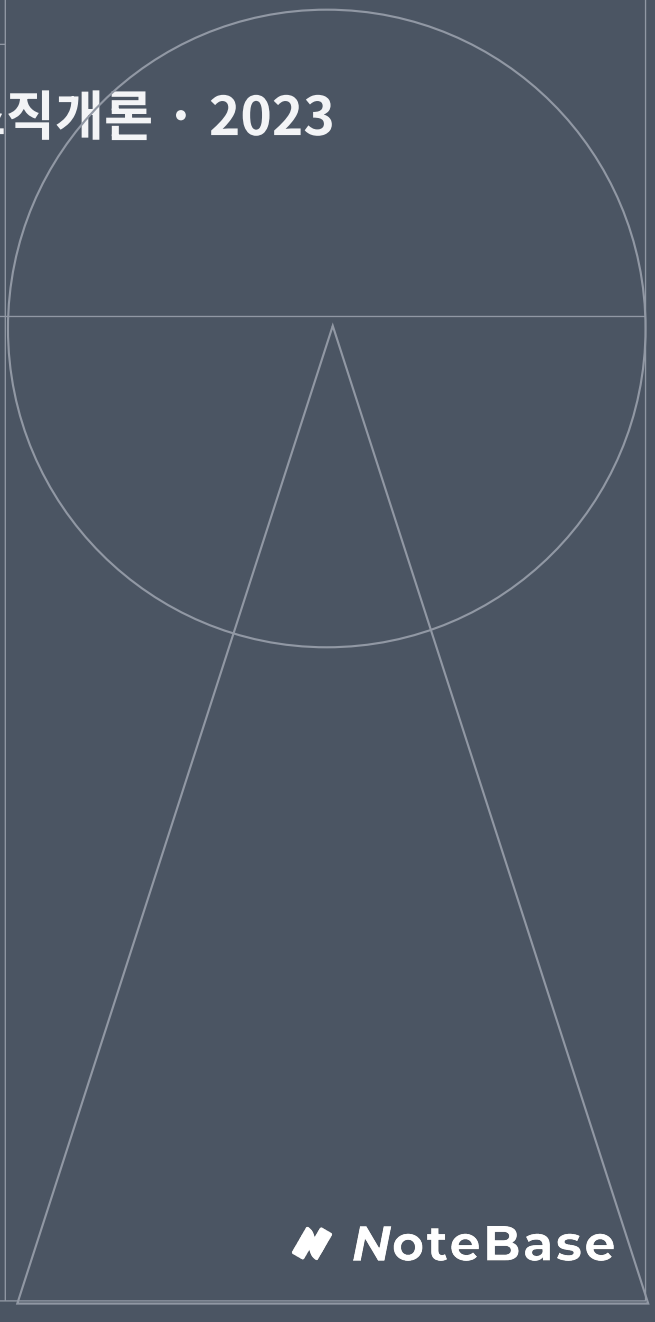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3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3

문 1. 국제목록원칙규범(2016)에서 목록규칙의 구조와 개발을 위해 제시한 일반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관용법

② 정확성

③ 충분성과 필요성

④ 이용자의 편의성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국제목록원칙규범(2016)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가장 중요한 일반원칙으로 명시한다. 목록 데이터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목록규칙과 접근을 위한 명칭 형식도 이용자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핵심 풀이

국제목록원칙규범(2016) 제2절은 목록규칙의 구조와 개발 등을 이끄는 일반원칙 중 **이용자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한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지기술과 검색에 쓰이는 명칭의 통제형을 결정할 때도 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는 목록을 검색하고 서지데이터나 전거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관용법은 기술과 접근점에 쓰는 어휘가 다수 이용자의 용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확성은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가 기술 대상 개체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원칙이며, 충분성과 필요성은 이용자의 접근, 목록의 목적과 기능 수행, 개체의 기술·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들 역시 일반원칙이지만, 발문은 개별 원칙의 내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된 원칙**을 묻는다.

NoteBase

문 2. 동서양의 다양한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니치(A. Panizzi)의 목록규칙은 1841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91개의 조항은 모두 기술규칙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한국목록규칙 제3판은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 규칙이며, 비도서 자료의 기술규칙이 포함되었다.

③ 영미목록규칙(AACR) 제1판은 저자명기본표목 방식이며, 북미판과 영국판이 각각 발행되었다.

④ 고재창의 한은도서편목법은 서명기본표목 방식이며, 단행본은 물론 연속간행물에 관한 규칙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영미목록규칙(AACR) 제1판은 **저자명기본표목**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1967년에 **북미판과 영국판**으로 나뉘어 발행되었다. 저자명기본표목은 원칙적으로 저자의 이름을 목록의 기본적인 배열·검색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파니치의 91개조 목록규칙이 1841년에 발표되었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서명·출판사항 등 자료의 특징을 적는 기술규칙뿐 아니라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모두 기술규칙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표목은 목록의 배열과 검색 기준이 되는 이름이나 서명 등을 뜻하며, 자료의 서지사항을 적는 기술과 구별된다.

② X: 한국목록규칙 제3판은 동양서와 서양서에 함께 적용하는 규칙이지만, 그 대상은 **단행본**이었다. 비도서자료의 기술규칙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비도서자료 등 여러 자료유형의 기술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4판이다.

③ O: 1967년에 발행된 AACR 제1판은 **저자명기본표목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저자가 밝혀진 저작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영미 간 세부 규칙에 대한 견해 차이로 완전히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지 못하여 북미판과 영국판이 각각 발행되었다.

④ X: 고재창의 한은도서편목법은 서명기본표목이 아니라 **저자명기본표목 방식**을 채택하였다. 1954년에 편찬된 동양서·서양서 공용 규칙으로, 단행본뿐 아니라 연속간행물에 관한 규칙도 다루었다. 따라서 자료의 수록 범위에 관한 뒷부분은 맞고, 기본표목을 서명으로 설명한 앞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3. AACR2와 RD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RDA는 장서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기술의 수준을 간략수준, 중간수준, 완전수준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② AACR2에서는 본표제 다음에 자료유형표시(GMD)를 기술한다.

③ AACR2에서는 단행본, 지도자료, 녹음자료 등과 같이 자료유형별로 장이 구성되어 있지만, RDA에서는 기술요소별로 되어 있다.

④ AACR2에서 사용하였던 '통일표제'의 개념이 RDA에서는 '저작의 우선표제'로 나타났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간략수준·중간수준·완전수준의 **3단계 기술수준은 AACR2의 규정**이다. 초기 RDA는 이 방식 대신 자원 식별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간략수준·중간수준·완전수준으로 기술의 상세도를 구분한 것은 **AACR2**이다. 간략수준은 기본적인 식별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중간수준과 완전수준으로 갈수록 더 상세한 정보를 기술한다. 초기 RDA는 이처럼 기술수준을 3단계로 나누는 대신, 해당 자원에 적용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최소한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지의 'RDA'를 'AACR2'로 고쳐야 한다.

② O: AACR2의 자료유형표시(GMD)는 자료의 일반적인 유형을 나타내며, **본표제 바로 뒤에 대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예를 들어 본표제 뒤에 [sound recording]을 붙이면 녹음자료임을 나타낸다. 대등표제나 표제관련정보가 있으면 GMD는 그보다 앞에 놓인다.

③ O: AACR2의 기술부는 도서, 지도자료, 녹음자료 등 **자료유형별**로 장을 나누어 각 유형의 기술규칙을 제시한다. RDA는 개체의 속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표제·발행사항 등 기술요소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따라서 자료유형을 먼저 구분하여 해당 장을 찾는 AACR2와 기술할 요소를 중심으로 지침을 찾는 RDA의 구성상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④ O: AACR2의 통일표제는 서로 다른 표제로 나타난 동일 저작을 모으거나 다른 저작과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 RDA의 **저작의 우선표제**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택한 표제 또는 표제의 형식으로, 그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기초가 된다. 개별 자료에 표시된 본표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과 저작을 식별할 대표 표제를 정하는 것은 구분된다.

NoteBase

문 4.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단행본의 기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팜플렛

② 점자자료

③ 별쇄본

④ 도서가 주된 구성요소인 복합매체자료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점자자료는 **단행본의 기술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2장 '점자자료'의 별도 기술규칙을 적용한다. 책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단행본 장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팜플렛은 분량이 적은 소책자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팜플렛도 단행본의 기술 대상에 포함하므로,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는다**.

② X: 점자자료는 단행본의 기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자료유형별로 기술규칙을 구분하며, 점자자료에는 단행본 장이 아니라 **제12장 '점자자료'**의 규칙을 적용한다.

③ O: 별쇄본은 도서나 학술지 등에 수록된 일부 내용을 따로 인쇄한 자료이다. 원래 다른 간행물의 일부였더라도 **따로 인쇄된 별쇄본**은 단행본의 기술 대상에 포함된다.

④ O: 복합매체자료는 서로 다른 매체가 결합된 자료이다. 그중 **도서가 주된 구성요소**인 자료는 단행본의 기술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매체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행본 기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5. 전자책으로 발간된 『20세기 미국의 도서관 건축』을 Dublin Core로 기술할 경우, 해당 자원 내에 표현된 '20세기'를 기술하는 기본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itle

② Date

③ Description

④ Coverage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세기'는 전자책이 발간된 때가 아니라 **내용이 다루는 시대적 범위**이므로 Coverage에 기술한다.

개념 구분

Coverage는 자원 내용의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20세기 미국의 도서관 건축』에서 '20세기'는 도서관 건축을 다루는 **시간적 범위**이므로 Coverage에 기술한다. 시대명이 서명에 포함되어 있어도, 여기서 묻는 것은 서명 전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나타내는 내용의 범위이다.

Date는 자원의 생성·발행 등 **자원 자체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낸다. 이 전자책의 발행일을 기술한다면 Date를 쓰지만, 내용의 대상 시기인 '20세기'는 전자책의 발행 시기를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6.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 제시된 전자자료의 기술을 위한 다음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레이블
(나) 내부정보원(표제화면, 주메뉴, 프로그램 설명 등)
(다) 레이블
(라) 안내 지침서 등의 딸림자료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다)→(나)→(가)→(라)
④ (다)→(나)→(라)→(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같은 레이블이라도 **자료 자체의 레이블**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원이며, **용기에 부착된 레이블**은 안내 지침서 등의 딸림자료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올바른 순서

(다) → (나) → (라) → (가)

(다) 레이블: 전자자료 자체에 표시되거나 부착된 레이블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제시된 정보원 중 **자료 자체의 레이블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표제화면 등의 내부정보원보다 앞선다.

(나) 내부정보원: 표제화면, 주메뉴, 프로그램 설명 등 전자자료 내부에서 확인하는 정보이다. 레이블 다음 순위이며, 자료에 딸려 온 별도의 안내 지침서보다 **자료 내부의 정보를 우선**한다.

(라) 안내 지침서 등의 딸림자료: 전자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 안내 자료이다. 내부정보원 다음에 이용하며, **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레이블보다 앞선다**.

(가) 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레이블: 전자자료를 담는 케이스나 그 케이스의 레이블에 표시된 정보이다. 자료 자체의 레이블인 (다)와 구별되며, 제시된 네 정보원 중에서는 딸림자료 다음인 마지막 순위이다.

NoteBase

문 7.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으로 레코드를 작성할 때, 자료특성사항의 기술 사례가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마이크로자료에 수록된 악보
255 ▼a총보

② 전자자료
256 ▼a전자 데이터 (550 레코드)

③ 인쇄지도
254 ▼a축척 1 : 50,000 ; 횡축메르카토르도법

④ CD-ROM에 수록된 연속간행물
310 ▼a창간호 (1920년 1월) - 제66권 12호 (1985년 12월)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자자료의 **자료내용과 크기**는 256 필드의 ▼a에 기술한다. '전자 데이터'는 파일의 유형을, '(550 레코드)'는 그 크기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총보'는 악보의 표현형식이므로 **254 필드**의 ▼a에 기술한다. 마이크로자료에 수록된 악보도 이 악보 특성을 기술할 때는 '254 ▼a총보'로 쓴다. 255 필드는 축척·도법 등 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를 기술하는 필드이다.

② O: 256 필드는 컴퓨터파일의 유형과 레코드 수 등 특성을 기술한다. ▼a에 유형인 '전자 데이터'를 쓰고, **크기를 나타내는 레코드 수를 괄호 안에** 적으므로 '256 ▼a전자 데이터 (550 레코드)'는 적절하다.

③ X: 지도의 축척과 도법은 254가 아니라 **255 필드**에 기술한다. 또한 축척은 ▼a, 도법은 ▼b로 구분한다. 따라서 '255 ▼a축척 1 : 50,000 ;▼b횡축메르카토르도법'으로 고친다. 254 필드는 악보의 표현형식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④ X: 창간호와 종간호의 권호·연월 범위는 **362 필드의 권·연차, 연월차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362 ▼a창간호 (1920년 1월) - 제66권 12호 (1985년 12월)'으로 고친다. 310 필드는 '월간'과 같은 현재 간행빈도를 기술하며, CD-ROM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권호·연월 범위를 310에 기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8. 다음 자료를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으로 레코드를 작성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계명작시리즈 15

단순한 열정 Passion simple
1판 1쇄 2001년 6월 20일
1판 15쇄 2011년 9월 26일
2판 1쇄 2012년 11월 7일
2판 12쇄 2022년 10월 20일

지은이 아니 에르노 | 옮긴이 최정수
펴낸곳 문학동네 | 펴낸이 김소영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ISBN 978-89-546-1958-5 04860
ISBN 978-89-546-0901-2(세트)
가격 10,000원

◯ 마지막 페이지는 95쪽임
◯ 크기는 가로 17.5 cm, 세로 21.1 cm임

ㄱ. 020 ▼a9788954609012(세트)
ㄴ. 020 ▼a9788954619585▼b04860 :▼c₩10000
ㄷ. 245 ▼a단순한 열정 /▼d지은이: 아니 에르노 ;▼d옮긴이: 최정수
ㄹ. 246 ▼aPassion simple
ㅁ. 260 ▼a파주 :▼b문학동네,▼c2012
ㅂ. 300 ▼a95 p. ;▼c18 cm

① ㄱ, ㄷ, ㅂ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정답 2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발행년은 **해당 판의 첫 쇄가 발행된 해**를 기준으로 기록한다. 이 자료는 2판 1쇄가 2012년에 발행되었으므로 260 필드의 ▼c에 2012를 기록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020 필드의 ▼a에는 ISBN을 기록하고, 세트 여부와 같은 한정정보는 ISBN 뒤의 **원괄호 안**에 덧붙인다. 따라서 세트 ISBN을 '020 ▼a9788954609012(세트)'로 기록할 수 있다.

ㄴ. X: 04860은 ISBN의 부가기호이므로 **▼b가 아니라 ▼g**에 기록한다. ▼a에는 낱권 ISBN을, ▼c에는 가격 등의 입수조건을 기록하므로 '020 ▼a9788954619585▼g04860 :▼c₩10000'으로 고친다.

ㄷ. X: 245 필드에서 ▼d는 첫 번째 책임표시, ▼e는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를 기록하는 식별기호이다. 저자인 아니 에르노는 ▼d에, 번역자인 최정수는 **▼e에 기록**해야 하므로 '245 ▼a단순한 열정 /▼d지은이: 아니 에르노 ;▼e옮긴이: 최정수'로 고친다.

ㄹ. O: 'Passion simple'은 번역서의 원표제이다. 원표제는 **246 필드**에 기록하므로 '246 ▼aPassion simple'로 기술할 수 있다. 문제에서 지시기호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ㅁ. O: 260 필드의 ▼a에는 발행지인 파주, ▼b에는 발행처인 문학동네, ▼c에는 발행년을 기록한다. 발행년은 **해당 판의 첫 쇄 발행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2판 1쇄가 발행된 2012년을 기록한다. 2001년은 1판의 첫 쇄 발행년이고, 2022년은 2판 12쇄의 인쇄연도이므로 이 자료의 발행년으로 삼지 않는다.

ㅂ. X: 300 필드의 ▼a에 마지막 쪽수에 따라 '95 p.'를 기록한 부분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 책의 크기는 가로 17.5 cm가 아니라 **세로 21.1 cm를 기준으로 올림**하여 22 cm로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300 ▼a95 p. ;▼c22 cm'로 고친다.

옳은 보기는 ㄱ·ㄹ·ㅁ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KORMARC 형식(전거통제용, 2016 개정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KORMARC 형식 전거레코드는 서지레코드와 마찬가지로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필드로 구성된다.

② 인명, 단체명, 회의명, 표제, 주제명, 지명 등에서 가장 우선되는 용어는 1XX 필드에, 이에 대한 이형은 4XX 필드에 기술한다.

③ 1XX 필드에 기술된 우선어와 관련되는 용어는 5XX 필드에 기술하며, 5XX 필드에 기술되는 용어는 우선어 또는 비우선어 모두 가능하다.

④ 전거제어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동일 저자, 동일 표제, 동일 주제 등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5XX 도보라부출에는 1XX의 우선어와 관련되는 **다른 우선어**를 기술한다. 비우선어인 이형은 **4XX 보라부출**에 기술하므로, 5XX에 우선어와 비우선어를 모두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거레코드는 **리더·디렉토리·가변길이필드**로 구성된다. 리더는 레코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렉토리는 가변길이필드의 위치를 안내한다. 가변길이필드에는 제어필드와 데이터필드가 포함되며, 이러한 기본 구조는 서지레코드와 같다.

② O: 채택하여 사용하는 우선어는 1XX에, 같은 대상을 달리 표현한 이형은 4XX에 기술한다. 4XX는 **비우선어에서 우선어로 안내하는 보라참조**를 위한 필드이다. 따라서 이름이나 표제 등의 다른 표현으로 검색하더라도 채택된 표현으로 접근할 수 있다.

③ X: 5XX는 1XX의 우선어와 관련되는 **다른 우선어를 기술하는 도보라부출** 필드이다. 우선어 사이의 관련 관계를 연결하므로, '우선어 또는 비우선어 모두 가능하다'는 부분은 '우선어를 기술한다'로 고쳐야 한다. 비우선어인 이형을 우선어로 안내하는 기능은 4XX가 담당한다.

④ O: 전거제어는 동일한 저자·표제·주제 등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뉘어 검색되는 문제를 줄인다. 다양한 표현을 채택된 표현과 연결하여 **동일 대상의 자료를 모아 검색**할 수 있게 하므로, 검색의 누락을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

NoteBase

문 10.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으로 작성한 레코드의 일부이다. 505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245 00 ▼a세계문학전집 /▼d세계문학전집편찬위원회 편
505 00 ▼n1.▼t젊은 사자들 /▼d어어윈 쇼 저 ;▼e김성한 역
       --▼n2.▼t분노는 포도처럼 /▼d존 쉬타인벡 저 ;
       ▼e강봉식 역 -- ▼n3.▼t독일민족설화집 /▼d그림
       형제 편 ;▼e김창호 역
```

① 종합표제 또는 대표표제 아래 두 개 이상의 저작이 수록된 경우, 내용주기에는 그 수록된 저작의 내용을 기술한다.

② 내용주기의 표시 수준은 기본형과 확장형 중에 선택하여 기술할 수 있으며, 위의 레코드는 기본형에 해당한다.

③ 505 필드를 이용하여 표제, 저자명 색인파일을 직접 생성할 수 있다.

④ 505 필드에서 생성된 저자명 색인파일 가운데 서양인명은 700 필드에서 도치형으로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시된 505 필드는 제2지시기호가 0이고 권차·표제·책임표시를 식별기호로 나누어 기술한 **확장형**이다.
기본형은 제2지시기호를 빈칸으로 두고 내용 정보를 ☒**a에 모두 기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505는 종합표제나 대표표제 아래 수록된 개별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 등을 기록하는 내용주기 필드이다. 제시된 레코드에서는 245에 종합표제인 '세계문학전집'을 적고, 505에 **수록 저작별 표제와 책임표시**를 기술하였다.

② X: 내용주기는 기본형과 확장형 중에서 선택하여 기술할 수 있지만, 제시된 레코드는 **기본형이 아니라 확장형**이다. 505의 제2지시기호 0이 확장형을 나타내며, ☒n은 권차, ☒t는 표제, ☒d는 첫 번째 책임표시, ☒e는 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를 구분한다. 기본형은 제2지시기호가 빈칸이고, 이러한 내용 정보를 ☒a에 모두 기술한다.

③ O: 확장형은 표제와 책임표시를 식별기호로 구분하므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제·저자명 색인파일을 직접 생성**할 수 있다. 제시된 레코드의 ☒t에 있는 표제와 ☒d에 있는 저자명 등이 검색에 이용될 수 있다.

④ O: 정확한 저자명 색인을 작성하기 위해 700 '부출표목－개인명' 필드에 개인명의 추가 검색 접근점을 마련할 수 있다. 서양인명은 **성을 먼저 두는 도치형**으로 다시 기술할 수 있으므로, 내용주기의 '어어윈 쇼'를 700에서는 '쇼, 어어윈'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NoteBase

문 11.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DC와 달리 어학과 문학을 같은 주류인 3류에 배치하고 있다.

② 주류는 자료의 양과 이용가치를 중심으로 물질과학에서 정신과학 순으로 배열하였다.

③ 주류의 분류기호가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제한되어 있다.

④ 공통형식구분, 문학형식구분 등의 조기성 기호가 도입되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조선십진분류표는 문헌량과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류를 **정신과학에서 물질과학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②는 이 배열 방향을 거꾸로 설명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십진분류표는 서로 밀접한 **어학과 문학을 3류에 함께 배치**하였다. 어학을 400, 문학을 800으로 나누어 배치한 DDC와 구별된다.

② X: 조선십진분류표는 자료의 양과 이용가치를 고려하되 주류를 **정신과학에서 물질과학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따라서 '물질과학에서 정신과학 순'을 '정신과학에서 물질과학 순'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조선십진분류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순수기호법을 채택하고, 분류기호를 **소수점 없이 4자리까지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기호를 계속 늘려 새로운 세부 주제를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O: 조기성은 같은 개념에 일정한 기호를 반복하여 부여함으로써 분류기호를 쉽게 기억하도록 하는 성질이다. 조선십진분류표에도 공통형식구분과 문학형식구분 등에 조기성 기호가 도입되었지만,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조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이다.

NoteBase

문 12. 근대 지식분류(학문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이컨(F. Bacon)은 인간의 학문을 정신능력에 따라 사학, 시학, 이학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DDC에 영향을 미쳤다.
ㄴ. 앙페르(A. Ampère)는 『과학철학시론』에서 학문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콜론분류법에 영향을 미쳤다.
ㄷ. 스펜서(H. Spencer)는 과학을 추상성과 구체성의 진화론 관점에서 추상적 과학, 추상적 및 구체적 과학, 구체적 과학으로 구분하였다.
ㄹ. 헤겔(G. Hegel)은 『실증철학강의』에서 모든 과학 가운데 수학을 선치시킨 후,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배치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ㄹ의 『실증철학강의』와 수학을 앞세운 과학 배열은 **콩트(A. Comte)**의 학문분류이다. 헤겔의 설명으로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베이컨은 인간의 정신능력을 기준으로 기억에 사학, 상상에 시학, 이성에 이학을 대응시켰다. 여기서 이학은 철학과 과학을 포괄하는 학문 영역이다. 이러한 **정신능력에 따른 삼분법**은 해리스의 도서분류 등을 거쳐 듀이십진분류법(DDC)에 영향을 미쳤다.

ㄴ. O: 앙페르는 『과학철학시론』에서 학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순수학문 다음에 그 응용학문을 배치**하는 방식은 랑가나탄의 콜론분류법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물리학 다음에 공학, 식물학 다음에 농학을 두는 배열이다.

ㄷ. O: 스펜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과학을 **추상적 과학, 추상적 및 구체적 과학, 구체적 과학**으로 구분하였다. 추상적 과학은 논리학·수학처럼 현상에서 추출한 형식과 관계를, 추상적 및 구체적 과학은 물리학·화학처럼 현상을 이루는 요소의 법칙을, 구체적 과학은 천문학·생물학처럼 여러 요소가 결합한 실제 현상 전체를 다룬다.

ㄹ. X: 『실증철학강의』를 쓰고 과학을 수학 → 천문학 → 물리학 → 화학 → 생물학 → 사회학 순으로 배열한 인물은 헤겔이 아니라 **콩트**이다. 콩트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현상을 다루는 과학을 앞에, 특수하고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 과학을 뒤에 배치하였다.

옳은 보기는 ㄱ·ㄴ·ㄷ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3. 우리나라의 주요 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동문헌총록』은 김휴가 편찬한 해제서목이다.

② 『신편제종교장총록』은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것으로 3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③ 『규장총목』은 서호수가 편찬한 규장각 소장장서의 해제서목이다.

④ 『한국서지』는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M. Courant)이 편찬한 해제목록으로 사부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한국서지』는 경·사·자·집으로 나누는 사부분류법이 아니라 **9부로 나눈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모리스 쿠랑이 편찬한 해제목록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분류법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해동문헌총록』은 김휴가 우리나라의 여러 서적을 조사하여 편찬한 **해제서목**이다. 해제서목은 책의 이름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나 책의 내용·특징 등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 목록이다.

② O: 『신편제종교장총록』은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불교 주석서의 목록이다. 불교 문헌의 기본 구분인 **경·율·론의 3분법**을 적용하였다. 경은 부처의 가르침, 율은 수행자가 지킬 계율, 론은 교리에 대한 해석과 논의를 다루며, 이 목록은 각 부류에 관한 주석서를 정리한 것이다.

③ O: 『규장총목』은 서호수가 왕명에 따라 편찬한 **규장각 소장 도서의 해제목록**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중국본을 대상으로 책을 분류하고 서명·책수·저자 등 서지사항과 해제를 기록하였다.

④ X: 『한국서지』는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이 한국 고문헌을 조사하여 편찬한 해제목록이지만, **사부분류법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교회·언어·유교·문묵·의범·사서·기예·교문·교통의 9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경·사·자·집의 네 부문으로 나누는 사부분류법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4. L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십진식으로 전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규모 도서관에 적합하다.
ㄴ. 현존하는 최대 열거식 분류표로서,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혼합기호를 사용하였다.
ㄷ. 전개식 분류법(EC)의 주류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ㄹ. 합성식 분류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혼합주제의 기호화가 가능하다.
ㅁ. 인간의 미적 및 예술적 활동은 H~L에 구분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LCC는 주제를 미리 나열하는 **열거식 분류법**으로, 주제 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하는 합성식과 구별된다.
음악·미술·문학 등 미적·예술적 활동은 H~L이 아니라 **M·N·P 계열**에 배치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LCC는 각 분류 단계를 반드시 10개씩 나누는 십진식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십진식 분류법**이다.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주제를 세밀하게 전개할 수 있고 방대한 장서를 구분할 수 있어 대규모 도서관에 적합하다. 비십진식이라는 말이 소수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ㄴ. O: LCC는 방대한 주제와 세목을 미리 나열한 최대 규모의 열거식 분류표이다. 주류·강목을 나타내는 알파벳에 세부 주제를 구분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는 **혼합기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N은 미술을 나타내고, 그 아래 세부 주제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분한다.

ㄷ. O: LCC의 주류 구성과 배열은 커터의 **전개식 분류법(EC)**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다만 EC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며, 미 의회도서관의 장서와 분류상의 필요에 맞추어 주류의 위치와 내용을 조정하였다.

ㄹ. X: LCC의 기본 원리는 합성식이 아니라 **열거식**이다. 합성식은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호를 조합하여 복합적인 주제를 표현하지만, LCC는 분류표에 열거된 항목과 명시적으로 허용된 지시에 따라 기호를 부여한다. 보조표나 기호 확장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혼합주제를 자유롭게 합성하는 분류법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ㅁ. X: 미적·예술적 활동에 해당하는 분야는 **M 음악, N 미술, P 언어·문학**에 배치된다. H~L에 해당하는 주요 분야는 H 사회과학, J 정치학, K 법학, L 교육학이므로 보기의 범위가 잘못되었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KDC 제6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중학교에서의 프로젝트 교수법』의 분류기호로 옳은 것은?

371 교육정책 및 행정
372 학교행정 및 경영, 보건 및 교육지도
373 학습지도, 교육방법
교수이론, 교육공학, 교육기술 등을 포함한다.
.1 학습지도, 조직
.2 교수법, 지도방법
.21 강의식
.22 문답식
.23 토의식
.24 계발법
.25 프로젝트(단원)법
374 교육과정
375 유아 및 초등교육
376 중등교육
.5 중학교교육
중학교를 포함한다.
376.51-.54는 371-374와 같이 세분한다.

① 376.57325
② 376.5325
③ 376.325
④ 376.525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중학교교육 376.5는 371~374와 같이 세분하므로, 373.25 '프로젝트(단원)법'을 중학교교육에 적용한 분류기호는 **376.5325**이다.

NoteBase

공통 해설

본표의 '376.51-.54는 371-374와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는 중학교교육 376.5 아래에 371~374의 주제 구분과 그 하위 세분을 대응시켜 적용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371은 376.51에, 372는 376.52에, 373은 376.53에, 374는 376.54에 대응한다.

'프로젝트(단원)법'은 373 '학습지도, 교육방법' 아래의 .25이므로 373.25이다. 이를 중학교교육에 적용할 때는 373에 대응하는 **376.53 뒤에 하위 세분 25**를 이어 붙인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프로젝트 교수법』의 분류기호는 376.5325가 된다.

NoteBase

문 16. KDC 제6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분류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600 예술(藝術)
미술, 장식미술, 음악, 연극, 영화, 오락 등에 관한 종합저작을 포함한다.
예술에 관한 표준구분은 600.1-.9에, 미술에 관한 표준구분은 601-609에 분류한다.
.9 예술사
발달, 비평 등을 포함한다.
특수분야의 예술사는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예: 연극사 680.9
.903 중세
.91 아시아(동양)예술사
.9103 중세
.9104 근세
.911-.919 아시아 각국의 예술사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예: 한국예술사
600.911
.92 서양예술사
609 미술사
600.901-.979와 같이 세분한다. 예: 미국미술사 609.42
620 조각, 조형미술

① 『중세미술사』→600.903
② 『아시아근세예술사』→600.9104
③ 『일본미술사』→609.13
④ 『조각의 역사』→620.9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중세미술사'는 예술 전반의 역사가 아니라 **미술사인 609**에서 세분한다. 600.903의 중세 구분에 대응하는 03을 적용하면 **609.03**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600.903은 예술 전반을 다룬 중세 예술사의 기호이다. '중세미술사'는 **미술사 609**에 분류하고, '600.901-.979와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에 따라 중세인 600.903에서 600.9 다음의 03을 가져온다. 따라서 600.903을 609.03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아시아근세예술사'는 아시아 예술의 근세 역사를 다루므로 아시아예술사 600.91 아래의 **근세 구분 600.9104**를 그대로 적용한다. 특정 미술 분야로 한정되지 않은 예술사이므로 609로 옮기지 않는다.

③ O: '일본미술사'는 미술사 609를 기본으로 한다. 일본의 지역구분 기호는 13이므로 일본예술사는 600.913이며, 609의 세분 지시에 따라 **600.9 다음의 13**을 609의 소수점 아래에 붙이면 609.13이 된다.

④ O: 본표는 **특수분야의 예술사를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하도록 지시한다. 조각은 620에 해당하므로 '조각의 역사'는 종합적인 예술사 600.9가 아니라 조각 620 아래에서 역사로 세분한 620.9에 분류한다.

NoteBase

문 17. KDC 제6판의 본표와 조기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재중한국인』의 분류기호로 옳은 것은?

331 사회학
.3 인구, 인구이동
.37 국제 인구이동, 이민
.371-.377 각국 이민
정착국을 기준으로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별법: 필요한 경우 0을 부가한 후 이민의 출발국을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지역구분표
-11 대한민국
-12 중국

① 331.371112
② 331.371211
③ 331.3711012
④ 331.3712011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중한국인』은 **정착국이 중국, 출발국이 대한민국**인 이민을 다룬다. 정착국의 지역기호를 먼저 붙이고, 별법에 따라 **0을 사이에 두고 출발국의 지역기호**를 덧붙인다.

공통 해설

제시된 분류 규칙은 각국 이민을 **정착국을 기준으로 세분**하고, 출발국까지 나타낼 때에는 별법에 따라 그 뒤에 0과 출발국의 지역기호를 붙이도록 한다. 따라서 기호의 구성은 '331.37 → 정착국의 지역기호 → 0 → 출발국의 지역기호'가 된다. 지역구분표의 -11과 -12에서는 붙임표를 제외한 숫자 부분을 사용한다.

『재중한국인』의 '재중'은 중국에 거주한다는 뜻이므로 정착국은 중국이고, 한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이민에 해당한다. 먼저 331.37 뒤에 중국의 지역기호 12를 붙이면 331.3712가 된다. 여기에 출발국을 나타내는 별법을 적용하여 **0을 붙인 뒤 대한민국의 지역기호 11**을 덧붙이면 331.3712011이 된다. 정착국과 출발국을 바꾸거나 두 지역기호 사이의 0을 생략하면 이 규칙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DDC 제23판으로 『프랑스의 의학대학 디렉토리』를 분류할 경우, 분류기호의 조합 과정이 옳은 것은?

① 610(의학) + -025(T1: directory) + -44(T2: France)

② 610(의학) + -0711(T1: higher education) + -44(T2: France)

③ 610(의학) + -025(T1: directory) + -0711(T1: higher education) + -44(T2: France)

④ 610(의학) + -0711(T1: higher education) + -025(T1: directory) + -44(T2: France)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DDC의 표준구분 우선순위에서 **교육·연구(-07 계열)**는 디렉토리(-025)보다 앞선다. 의학대학 디렉토리에는 고등교육을 나타내는 -0711을 선택하고, -025를 중복하여 붙이지 않는다.

공통 해설

DDC에서는 한 자료에 여러 표준구분이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이를 연달아 붙이지 않고 **우선순위표에서 앞서는 표준구분 하나를 선택**한다. 교육·연구를 나타내는 -07 계열은 인명·기관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025보다 우선한다.

『프랑스의 의학대학 디렉토리』에는 고등교육이라는 측면과 디렉토리라는 측면이 함께 있다. 이때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기호 -0711을 선택하므로, -025만 사용하는 방식이나 -025와 -0711을 어느 순서로든 함께 붙이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의 기본기호 610에 고등교육의 -0711과 프랑스의 지역기호 -44를 결합하여, 조합 과정은 '610(의학) + -0711(고등교육) + -44(프랑스)'가 된다.

NoteBase

문 19. DDC 제23판의 본표와 보조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분류기호로 옳은 것은?

636 Animal husbandry
.003–.006 Standard subdivisions
.008–.009 Standard subdivisions
.08 Specific topics in animal husbandry
.081 Selection, showing, ownership marks
.082 Breeding
.083 Care, maintenance, training
.084 Feeding
.7 Dogs
.7001–.7009 Standard subdivisions
Notation from Table 1 as modified under 636.001–636.009
.701–.708 Specific topics in husbandry of dogs
Add to base number 636.70 the numbers following 636.0 in 636.01–636.08
.8 Cats
.8001–.8009 Standard subdivisions
Notation from Table 1 as modified under 636.001–636.009
.801–.808 Specific topics in husbandry of cats
Add to base number 636.80 the numbers following 636.0 in 636.01–636.08

Table 1. Standard Subdivisions
–03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04 Special topics
–05 Serial publications
–06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08 Group of people
–09 History, geographic treatment, biography

① 『애견 훈련시키기』 → 636.7083

② 『월간 고양이 : 반려동물 전문잡지』 → 636.805

③ 『고양이 사료 먹이는 법』 → 636.80084

④ 『인류와 함께한 반려견의 역사』 → 636.8009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의 훈련은 특정 주제의 합성 지시에 따라 기본기호 636.70에 636.083에서 636.0 다음에 오는 **83을 붙여** 636.7083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된 본표에서 개는 636.7이고, 개 사육의 특정 주제는 기본기호 636.70에 636.01~636.08의 기호 중 636.0 다음에 오는 숫자를 붙인다. 훈련은 636.083이므로 **83을 붙여 636.7083**으로 만든다.

② X: 월간 잡지는 표준구분 -05인 연속간행물에 해당한다. 고양이의 표준구분은 본표에 636.8001~636.8009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위 항목 636의 표준구분도 .003~.006으로 조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양이의 연속간행물은 **636.8005**이며, 636.805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X: 사료 먹이기는 본표의 636.084에 해당하는 급식이다. 고양이 사육의 특정 주제는 기본기호 636.80에 636.0 다음에 오는 숫자를 붙이므로, 636.084에서 **84를 붙인 636.8084**가 된다. 636.80084는 0을 하나 더 넣은 기호이다.

④ X: 반려견은 개에 해당하므로 기본 분류는 636.7이다. 여기에 역사에 해당하는 표준구분 -09를 본표의 636.7001~636.7009 지시에 맞게 적용하면 **636.7009**가 된다. 제시된 636.8009는 고양이의 역사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A Digital Dilemma / by Alvin Toffler. Second edition”의 도서기호(저작기호 포함)는?

472 Alv 642 Toep
473 Alvare 643 Toes
474 Alve 644 Tof
475 Alvi 645 Tog
476 Alvo 646 Toi
477 Alvw 647 Tol

① A475a2
② A475d2
③ T644a2
④ T644d2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저자기호는 이름 Alvin이 아니라 **성 Toffler**를 기준으로 하므로 T644가 된다. 서명 첫머리의 관사 A를 제외한 Digital에서 저작기호 d를 취하고, 제2판을 나타내는 2를 붙인다.

공통 해설

이 문항의 도서기호는 **저자기호 + 저작기호 + 판차기호**의 관계로 구성한다. 저자기호는 저자의 성을 저자기호표에 대응시킨 것이고, 저작기호는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하는 문자이며, 판차기호는 같은 저작의 판을 구별하는 숫자이다.

Alvin Toffler에서 성은 Toffler이다. 제시된 표에서 Toffler는 알파벳순으로 Tof와 Tog 사이에 있으므로, 앞선 항목인 Tof의 숫자 644를 취한다. 여기에 성의 첫 글자 T를 붙여 T644로 나타낸다. Alvin은 이름이므로 Alvi에 해당하는 A475를 사용하지 않는다.

서명 'A Digital Dilemma'에서는 첫머리의 관사 A를 제외하고 첫 단어 Digital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써서 저작기호 d를 부여한다. 'Second edition'은 제2판이므로 판차기호 2를 덧붙인다. 이렇게 구성한 도서기호는 T644d2이다.

NoteBase